

■ 화제의 뉴스 ■

3. 서울시,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실시간 감시

서울시는 노무비와 장비·자재 대금지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'원·하도급 노무·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'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됩니다.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·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, 근로자의 노무비와 자재대금,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되어 대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'사업의 불연속성', '임시·일용 근로자'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는 원·하도급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, 장비 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
[관련 링크]

- [서울시,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- 연합뉴스 | 2012. 7. 3.](#)
- [건설노동자 임금 체불, 서울시가 막는다 - 조선일보 | 2012. 7. 3.](#)